

광주 · 전남지역 수의에 관한 실태 조사

임 린 · 김 용 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hroud around Kwangju and Chonnam Area

Linn Yim · Yong-Seo Kim*

Dept. of colthing & Textiles, Doctoral cours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lthing & Textiles, Professor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0. 11. 30 투고)

ABSTRACT

This Study shows local characters, meaning, value and others (kind, function, material, shape, name) on Shroud through documents and fact-finding survey.

In Shroud's kind and function, Shroud of Kwangju Area is similar with one of Youngsan-river Area, while Sumjin-river Area and Coastal Area, each has its own character due to difference of Burial Culture.

In Shroud's Material, hemp cloth, white cotton cloth and calico, have been well-used in Kwangju and Youngsan-river Area, while silk has used in Sumjin-river and Coastal Area. Shroud's color has followed Natural color.

In Shroud's shape, Male Jeoksam, Female Trousers, Um, Myokmok, Aksoo, Bib have their local characters. They are reformed in Kwangju Area and Youngsan-river Area. Jeoksam in Coastal Area, Female Trousers in Sumjin-river Area, Um in Coastal Area and Myokmok in Sumjin-river Area, have its unique character.

In Shroud's name, Shroud has widely been called "Dead Clothes", and called "Blind Clothes", "Munnyung Clothes" some areas. In Sumjin-river Area, Summer Jacket has been called "Deungjigae", Dango called "Ddangjungwee". In Coastal Area, Myokmok and Aksoo have been called "Face Cover" and "Hands Cover".

Shroud's local characters have been caused by Next World, which has reflected local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features. Next World is so abstract that it can not be expressed well, while Reality is clearly divided into dual spaces : Real World, Next World. Comprehension on Next World, helps harmonize recent values with Shroud meaning and prevents Shroud from standardization and transformation.

Key Words : Shroud(수의), Jeoksam(적삼), Um(업), Myokmok(먹목), Aksoo(악수), Bib(턱받이).

I. 서론

수의를 조선시대 예서(禮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예(禮)를 중시했던 시대적 기류에 따라 원형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왔던 생활양식에 따라 종류나 형태, 소재, 명칭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역민들의 지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한 가치관과 내세관은 수의와 결부되어 그들만의 독특한 수의 형태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수의에 관한 연구는 김두현¹⁾, 권계순²⁾ 등에 의해 상례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수의를 상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품목으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또한 장철수, 이광규, 최길성³⁾ 등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 민속학적 접근으로 수의를 다루었으며, 수의에 관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전영숙⁴⁾, 성기희⁵⁾, 유희경·김미자·강순제⁶⁾ 등에 의해 복식사적 관점에서 수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영숙의 「수의에 관한 연구」는 문헌에 나타난 수의를 고찰하는데 치중하였으며, 유희경·김미자·강순제의 「斂襲衣」는 출토복식에 대한 발굴과 실측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들어서 수의에 관한 연구들은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수의가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그에 따라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유관순의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을 통한 수의와 출토복식의 고찰, 현행 수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조사지역의 분포가 대도시나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수의의 특성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수의의 종류나 형태, 소재, 명칭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사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형성되었을 내세관이 수의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 양상을 띄는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살린 수의의 의미를 파악하고, 수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에 따른 수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범위는 광주와 전라남도로 한정하였으며, 전라남도는 나주·영암, 진도·완도, 구례·곡성지역으로 세분화시켰다. 이는 전남의 문화권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⁷⁾ 지역간 기능의 연계성과 공간적 동질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나주와 영암은 영산강 유역권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는 지역이고, 진도와 완도는 해안지역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구례와 곡성은 섬진강 유역권으로 유사성을 갖는 지역이며, 마지막으로 광주를 조사지역에 포함시켰다.

조사 대상자들의 범위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토착하여 평생을 거주한 사람 중 40년 이상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의 수의 제작에 참여하였던 일반인들과 종가(宗家)에서 수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후손들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의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30년 이상 직업적으로 바느질을 해 온 업계 종사자들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총 41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들 중 일반인은 28명으로 68.3%이고, 업계 종사자는 9명으로 21.9%, 종가집 후손은 4명으로 9.8%이다.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도 비슷하게 조성하였다. 성비(性比)는 여자가 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사를 실행하였다. 조사가 미비한 부분은 전화로 질의하였으며, 재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현장조사는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병행하였다.

[표 1] 각 지역별 조사 대상자⁸⁾ 현황

| 지역권 | 광주지역권 | 영산강 유역권 | | 섬진강 유역권 | | 해안지역권 | | 합계 |
|-----------|-------|---------|----|---------|----|-------|----|----|
| | | 나주 | 영암 | 구례 | 곡성 | 진도 | 완도 | |
| 조사 대상자(명) | 10 | 5 | 5 | 5 | 5 | 5 | 6 | 41 |

II. 수의의 지역별 실태와 특성

수의는 사자(死者)를 위한 옷으로 습의(襲衣)와 염의(斂衣)로 구분된다. 이 중 습의는 시신에 입히는 것이고, 염의는 시신을 싸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습의는 수의(襚衣)와 같은 의미로⁹⁾ 그 명칭이 혼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습의와 염의를 모두 포괄하는 수의(壽衣)로 통칭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의를 습의와 염의로 분류하고, 습의는 남자수의(男子襚衣)와 여자수의(女子襚衣), 습의의 부속품인 습구(襲具)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소·대렴(小·大斂)시에 사용하는 소렴구(小斂具), 대렴구(大斂具)는 소렴, 대렴을 동시에 행하는 현행 장례 풍속에 따라 염의로 통합하여 조사하였다.

수의의 품목별 명칭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두루마기, 적삼, 저고리, 바지, 버선은 일반화된 명칭으로 『사례편람』을 따르지 않고 이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 종류와 기능적 차이

수의는 지역에 따라 종류와 기능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이 위치한 지리적인 환경과 그 지역에서 자리잡아 온 지역민들의 문화적 관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의 종류는 지역별로 여자수의와 염의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광주지역권에서 남자수의는 도포, 두루마기, 적삼, 저고리, 단고(單袴), 고(袴), 늑백(勒帛)을 수의 품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의나 답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도포는 모든 지역에서 경제적 이유로 갖추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두루마기로 표의(表衣)를 대신하는 경향이였다.

여자수의는 족두리, 원삼, 두루마기, 적삼, 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를 기본 품목으로 하였다.

습구는 엄(掩), 먹목(幘目), 악수(握手), 과두(裹肚), 버선, 신이 필수품목으로 통용되었다.

이 중 과두는 광주지역권에서 남녀 모두에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신은 수의를 제작한 소재로 형태만을 갖추었다.

염의는 욱(擗), 침(枕), 금(衾), 교(絞), 소낭(小囊), 턱받이를 사용하였다.

소낭은 사자(死者)의 손톱과 발톱을 담는 기능으로 반드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예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를 사용하여 머리카락과 좌우 손발톱을 모두 넣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 머리카락을 제외한 나머지를 4개의 소낭에 넣어 주기도 하였다.

턱받이는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섬진강 유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의품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광주지역권에서는 베개 형식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턱베개로 분류하였다. 이때는 턱베개를 2개¹⁰⁾에서 3개¹¹⁾까지 만들었는데, 2개일 경우는 머리에 베는 베개와 턱을 받치는 베개이고, 3개인 경우는 머리와 턱, 무릎사이를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영산강 유역권은 남자수의와 여자수의의 종류가 광주지역권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습구 역시 형태와 명칭에서 차이를 보일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염의 중 과두는 여자의 수의품목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진강 유역권은 여자수의 중 속치마와 과두를 수의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신을 짚신으로 대체하고, 베개를 짚으로 또아리를 짜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베개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짚을 넣어 주었다. 이는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이 수의를 제작하고 남은 천을 베개에 넣고, 해안지역권에서는 솜을 넣어 주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소낭의 개수에서도 좌우 손톱, 좌우 발톱을 나누어 담기 위해 2개만을 사용하거나 머리카락 넣을 주머니를 첨가하여 3개만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해안지역권에서는 여자수의 품목 중 원삼을 대신하여 장옷을 입히기도 하였다. 악수는 적삼에 한 폭 정도의 천을 연결한 한삼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내륙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양식으로 해안지역권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욕과 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지역권에서는 매장문화의 차이로 이들을 수의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신을 매장할 때 교로 묶어진 시신만을 관에서 꺼내어 묻는 관습은 욱, 침, 금을 수의품목에서 제외시킨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관에 시신을 넣어 장지(葬地)까지 옮길 때 필요에 따라 제작하는 정도였다.

터받이에는 솜을 넣어 주었는데 그 방법이 특이하였다. 먼저 가로, 세로 30cm 가량의 정사각형 천을 깔고 그 위에 솜을 펴서 한 귀퉁이에서부터 말아서 그 끝을 끈으로 연결하여 묶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수의의 종류와 기능은 각 지역별로 특성을 보였으며, 모든 조사 대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특히 광주지역권과

인접한 영산강 유역권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은 보다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소재 선호도

수의의 소재는 천연섬유인 삼베, 광목, 옥양목, 무명, 명주, 견을 사용하였다.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에서는 천연섬유 중

[표 2] 지역별 수의의 종류

| 수의 분류 | 광주지역권 | 영산강 유역권 | 섬진강 유역권 | 해안지역권 | | |
|--------------|-------|---------|--------------|--------------|---------------|---|
| 수의의 | 남자 수의 | 도포 | 도포 | 도포 | 도포 | |
| |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
| | | 적삼 | 적삼 | 적삼 | 적삼 | |
| |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
| | | 단고 | 단고 | 단고 | 단고 | |
| | | 고 | 고 | 고 | 고 | |
| | | 늑백 | 늑백 | 늑백 | 늑백 | |
| | 여자 수의 | 족두리 | 족두리 | 족두리 | 족두리 | |
| | | 원삼 | 원삼 | 원삼 | 원삼 | |
| | | - | - | - | 장옷 | |
| |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
| | | 적삼 | 적삼 | 적삼 | 적삼 | |
| |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
| | | 단고 | 단고 | 단고 | 단고 | |
| | | 고 | 고 | 고 | 고 | |
| | | 속치마 | 속치마 | - | 속치마 | |
| | | 치마 | 치마 | 치마 | 치마 | |
| | 습구 | 엄 | 엄 | 엄 | 엄 | |
| | | 과두 | 과두 | - | 과두 | |
| | | 떡목 | 떡목 | 떡목 | 떡목 | |
| | | 악수 | 악수 | 악수 | 한삼 | |
| | | 말 | 말 | 말 | 말 | |
| | | 신(삼베) | 신(삼베) | 신(짚) | 신(종이) | |
| | 염의 | 소·대립구 | 욕 | 욕 | 욕 | - |
| | | | 침 | 침 | 침(짚) | - |
| | | | 금 | 금 | 금 | - |
| | | | 교 | 교 | 교 | 교 |
| 소낭 (4~5개) | | | 소낭 (4~5개) | 소낭 (2~4개) | 소낭 (2개~4개) | |
| 터받이 | | | 터받이 | - | 터받이 | |

에서도 삼베와 옥양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삼베는 사자(死者)에 직접 닿는 부분 즉, 적삼이나 단고 등과 수의의 안감으로 이용하였다. 근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산 삼베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국산 삼베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삼베는 안감뿐만 아니라 걸감 모두에서도 사용되어 삼베로만 수의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삼베의 선호 경향은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에서 시신을 이장할 때 명주가 뼈에 눌러 붙어 어려움이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섬진강 유역권과 해안지역권은 명주를 수의의 소재로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명주를 귀하고 값진 소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명주가 뼈를 잡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섬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지역권별로 소재를 선택하는 경향을 다르게 하였다.

섬진강 유역권은 가정에서 만든 무명의 사용도 많았다. 무명 역시 천연섬유이므로 수의의 소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밖에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에서는 고인이 혼인하면서 가져왔던 소재로 수의를 만들기도 하였다. 즉, 시집을 때 입었던 원삼을 간직하여 이를 수의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삼베나 광목으로 수의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도포나 원삼, 두루마기만은 견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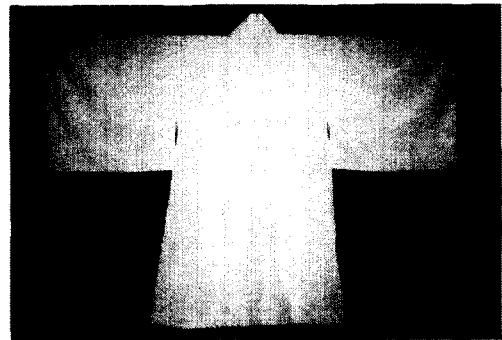
특이한 사항은 모든 조사지역에서 수의 소재로 모시의 사용을 금하였다. 모시라는 소재를 언급하여 이것의 사용을 금하였는데 이는 후손의 머리가 모두 하얗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천연 섬유라 할지라도 모시로 수의를 제작하는 경우는 없었다.

3. 형태적 특성

수의의 형태는 남자수의와 여자수의가 전통적인 복식 제도를 따르고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습구와 염의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광주지역권은 남자수의와 여자수의 모두가 현행 한복과 같은 형태였다. 특히 도포, 원삼, 두루마기

등의 표의는 모든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통복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소재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사진 1][사진 2]. 또한 남자수의와 여자수의의 적삼이 깃과 섹, 고름이 없는 형태로 단순화 되었으며, 바지도 전통적인 양식을 찾을 수 없었다. 도시화와 근대화에 의해 수의에서도 간소화 경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졌다.



[사진 1] 도포 (조일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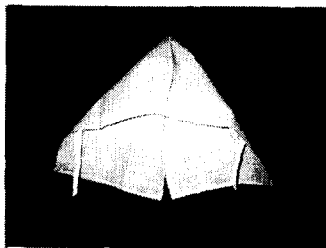
[사진 2] 원삼 (김덕선 제작)

의 형태는 [사진 3]에서와 같이 조선시대 예서에 기록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악수 또한 [사진 4]에 제시된 것처럼 많은 변형이 있었는데 직사각형 모양을 하였으며, 한쪽에 트임을 주었다. 교는 조선 시대에 종과 횡을 따로하여 사용한 것과는 달리 3폭의 천을 세로로 평행하게 연결하여 가운데 폭을 가장 길게 하고 양쪽의 폭은 가운데 폭보다 짧게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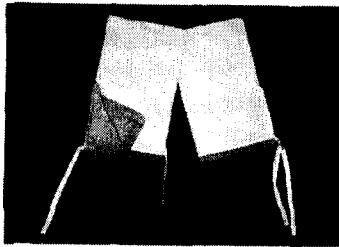
영산강 유역권에서도 남자수의와 여자수의의 적삼과 바지의 변형이 많았다. 그러나 수의에서 좌임

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어 전통적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좌입은 남녀수의의 저고리, 두루마기 등에서 나타났다. 수의의 좌입에 관한 기록은 『사례찬설(四禮纂設)』에서 소렴과 대렴에 모두 좌입하고 끈을 매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여밈은 대(帶)를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는 우(右)를 향하여 왼손으로 푸는 것이 편하고, 죽었을 때는 옷깃이 좌(左)를 향하게 하여 다시 풀지 않음을 나타냈다¹²⁾.

그러나 수의에서 좌입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수 없었으며, 영산강 유역권에서만 접할 수 있었다.



[사진 3] 엄 (김정순 제작)



[사진 4] 악수 (김덕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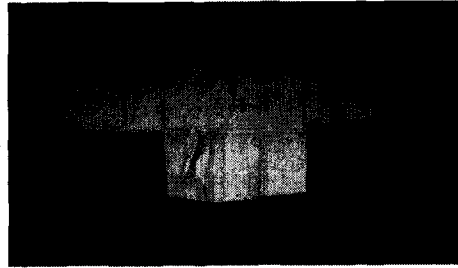


[사진 5] 소낭 (조영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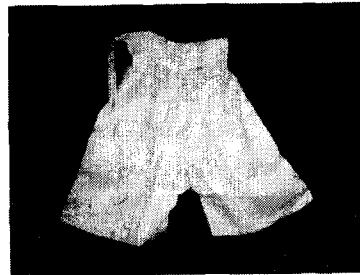
섬진강 유역권에서는 [사진 6]와 같이 남녀수의의 적삼이 전통적인 양식으로 나타났다. 저고리와 같은 형태이면서 치수가 저고리 보다 약간 작은 형

태로 등바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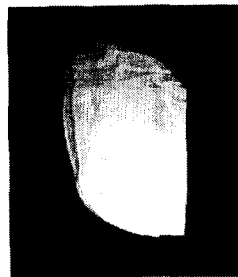
여자수의에서 [사진 7]는 여자 바지의 형태로 과거 단속곳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속치마를 대신하여 바지통을 넓게 한 단속곳을 착용하였다. 길이가 치마보다 약간 짧을 정도로 길었으며, 바지부리가 넓고 밑을 바대로 대어 막혀 있는 형태를 띠었다¹³⁾.



[사진 6] 남자 적삼 (오계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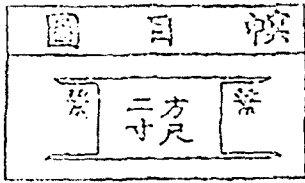


[사진 7] 여자 바지 (김초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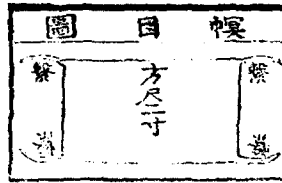


[사진 8] 엄 (임수남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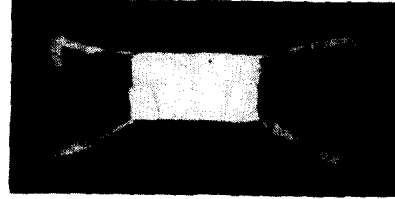
습구에서 역목은 『사례편람』과 『상례비요(喪禮備要)』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복식을 그대로 계승하는 섬진강 유역권의 특성으로 생각되었다[사진 9].



사례편람상도(四禮便覽喪圖)



상례비요도(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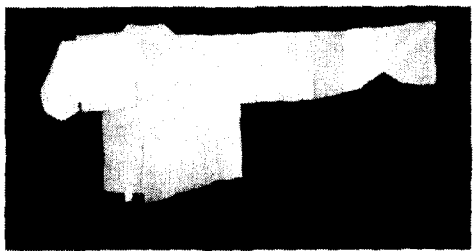
[사진 9] 역목 (황중이 제작)

해안지역권에서는 적삼의 형태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적삼에 한삼을 덧붙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었다. 한삼의 형태는 수의 소재 한 폭을 직사각형[사진 10]이나 저고리 배래 모양[사진 11]으로 제단한 뒤 저고리 수구에 연결하였다. 특히 저고리 배래 모양의 한삼은 적삼의 수구를 중심으로 저고리 배래와 한삼의 배래 모양이 대칭되게 하였다.

적삼은 한삼부분을 제외하면 섬진강 유역권과 외형적으로 같았다. 전통적인 적삼의 형태를 고수하면서도 이 지역만의 독특한 수의로 발전시킨 결과로 생각되었다. 한삼은 사자의 손을 가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악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진 10] 여자 적삼 (박고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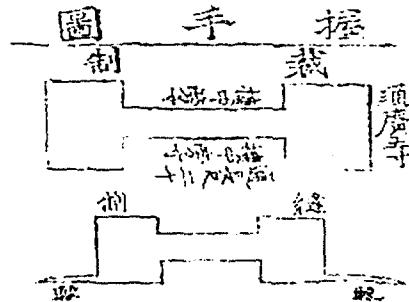
[사진 11] 남자 적삼 (김동개 제작)

습구에서는 엄의 형태가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크게 나누어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으로 분류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사진3]과 [사진 8]의 내륙지역권에서는 방한모인 남바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해안지역권에서는 [표 3]에 제시된 엄의 도식화에서와 같이 복두와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써서 앞부분은 얼굴을 가리고 뒤로 늘어뜨리는 형태였다.

역목은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이 정사각형의 천에 대각선 방향에 있는 두 귀에만 끈을 다는 반면 해안지역권에서는 섬진강 유역권과 같이 네 귀 모두에 끈을 달아 사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에 따라 사자의 얼굴에 씌울 때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은 천을 마름모꼴로 얼굴에 놓고 두 귀에 연결된 끈이 사자(死者)의 귀쪽에 오게하여 묶어 주었다. 그러나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은 정사각형꼴로 얼굴에 천을 놓고 네 끈을 위쪽과 아래쪽끼리 각각 묶어 주었다.

악수의 외형적 형태는 지역마다 가장 다양한 양상을 띄었다. 『상례비요』에 제시된 악수의 형태는 모든 지역에서 접할 수 없었으며, [사진 4]와 [표 3]에 제시된 악수의 도식화와 같이 장갑 형태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편리한 형태를 하였다. 크기나 트임방식, 끈을 연결하는 방식도 지역마다 달랐다. 광주지역권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을 하는 형태로 손을 넣을 수 있게 트임을 15cm 정도 주었으며, 끈의 길이는 27cm



상례비요도(喪禮備要圖)

로 넉넉하게 하였다. 반면에 영산강 유역권과 해안지역권에서는 22~24c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에 트임이 없거나 8~9cm 정도의 트임을 주어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해안지역권에서는 이러한 악수 형태를 볼 수 없었으며, [사진 10]과 [사진 11]에 제시한 것과 같은 악수 대응의 한삼을 볼 수 있었다.

턱받이의 형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섬진강 유역권은 턱받이의 사용이 없었으며, 광주지역권은 베개와 같은 형태와 타원형 천에 끈을 연결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영산강 유역권은 삼각형의 천에 끈을 양쪽으로 연결한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런 특징은 지역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 기능적 편리함을 위주로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해안지역은 턱받이에 솜을 넣어 매우 두툼하게 하였는데 이는 턱을 받치려는 기능적인 측면과 지역성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별 수의 형태의 외형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제시하고 증명한 수의 중 가장 일반적 형태를 [표 3]에서 도식화로 제시하였다.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남녀수의의 적삼과 여자 바지, 엄, 과두, 떡목, 악수, 턱받이를 중심으로 나타내었다.

4. 명칭과 지역언어의 관계

수의의 명칭은 지역마다 수의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서에 기록된 어려운 한자어보다 지역언어¹⁴⁾에 의해 각 지역마다 쉽고 일상적인 언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들을 『사례편람』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수의(壽衣)라는 명칭은 『사례편람』에서 습의(襲衣), 소렴의(小斂衣), 대렴의(大斂衣)로 각각 불리고 있었다. 즉, 습의와 염의를 통칭하는 수의(壽衣)는 근대에 이르러 사용되는 명칭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광주지역권, 영산강 유역권,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에서는 수의라는 말 이외에 죽음옷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일반인들에게 친근함을 갖게 했다. 영산강 유역권은 맹인옷이라고 하여 사자가 죽어서 볼 수 없음을 나타내는 명칭이고, 섬진강 유역권은 절속

이라고 하였다. 절속은 절(寺) 안의 고요함을 죽음과 견주어 나타낸 것으로 '절속같다'는 지역언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안지역권에서는 주검옷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남자수의의 한삼은 적삼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섬진강 유역권에서 등지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특이하였다.

단고는 훌바지라는 뜻 외에 바지 안에 입는다는 뜻에서 속바지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섬진강 유역권은 땅중의라는 표현이 있었으며, 해안지역권은 단중의, 개중의라는 명칭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여자수의 중 저고리를 돈방의, 돈방애라고 하였는데 영산강 유역권과 해안지역권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단고는 남자수의에서와 같이 속바지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고쟁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에 영산강 유역권에서는 가래고쟁이라고 하였으며, 해안지역권에서는 개중의라고도 하였다. 이외에 섬진강 유역권은 단애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었다.

바지는 광주지역권에서 고의라고 하였고, 섬진강 유역권은 가래바지라고도 불렀다.

습구에서 엄은 매우 다양하게 불리었다. 일반적으로 방한모나 머리쓰개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남바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영산강 유역권은 휘항(揮項)에서 유래한 듯한 해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광주지역권에서도 휘항이라는 표현을 접할 수 있었다. 휘항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쓰던 방한모의 한가지로 머리 윗부분은 트고 뒤는 길어 늘어뜨릴 수 있는 형태이다¹⁵⁾. 또한 아얌을 가르키는 아영이라는 말도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안지역권에서는 두렁다리, 두렁이라는 명칭이 남바위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과두는 생리대라는 현대식 말로 쉽게 뜻을 전달하였고, 남자의 과두는 혼도시(ふんどし)라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안지역권은 가집이나 계점이라는 말로 이를 대신하였는데 지역언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떡목과 악수는 수의의 형태와 기능을 살린 표현이 가장 많았다. 떡목은 얼굴을 싼다고 하여 낮싸개, 얼굴싸개, 낮닫개 등으로 불렀다. 마찬가지로 악수는 손싸개, 손쌍개라고 하여 쉽게 익힐 수 있는

[표 3] 지역별 수의 형태

| 수의 분류 | 광주지역권 | 영산강 유역권 | 섬진강 유역권 | 해안지역권 |
|-------|-------|---------|---------|-------|
| 남녀 적삼 | | | | |
| 여자 바지 | | | | |
| 엄 | | | | |
| 과두 | | | - | |
| 벽목 | | | | |
| 약수 | | | | - |
| 턱반이 | | | - | |

언어들이었다. 그러나 해안지역권에서는 그 형태상 춤을 추거나 혼례복에서 겹옷의 끝에 흰 천으로 길게 연결하여 손을 가린 형태와 같다고 하여 한삼이라고 하였다.

『사례편람』에 육, 금이라고 제시된 수의품목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요와 이불로 불리었다. 또한 밑에 깔고 위에 덮는다고 하여 천금, 지금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교는 홀이불이라는 명칭이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광주지역권은 엽할 때 쓰는 포라는 뜻에서 엽포라고 하였고, 해안지역권은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한다고 하여 장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소낭은 손톱 조(爪)와 머리카락 발(髮)의 한자어를 빌려 조발낭이라는 명칭이 많았다. 그리고 광주지역권은 소낭을 5개 사용한다고 하여 오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5. 내세관과의 관련성

인간이 죽어 다음 세계로 이행된다는 내세관은 지역이 위치한 지리적 요인이나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이 거주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풍습이 내세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수의를 비롯한 상례절차 등에 재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세는 지역적 특성과 그 시대에서 경험되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세의 연속이라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렇듯 수의가 내세관과 깊은 관계를 갖고 지역적으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은 내세관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수의가 지역에 따라 특성을 나타낸 것처럼 내세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堂神話에 반영된 남도인의 他界觀 고찰」에서 표인주는 내세를 내륙 지역의 내세관과 해안지역의 내세관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내세관을 형성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내세관은 지역별 수의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수의에 관한 문항과 함께 그들의 내세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는데 그 결과 구례·곡성지역과 진도·완도지역에서는 내세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의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냈던 섬진강 유역권은 내세의 중심을 하늘로 보고 있었다. 즉, 인간은 죽어서 강이나 물을 건너고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¹⁷⁾. 그러나 해안지역권에서는 어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내세관도 이러한 가치관에 의해 죽음에 도달하면 바다에 있는 용왕신을 면접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¹⁸⁾.

이러한 내세관의 지역적 차이가 수의의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섬진강 유역권과 해안지역권의 수의에서 종류와 형태 등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내세관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 수의가 변형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에는 현대인들의 내세에 대한 혼란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래 종교의 유입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세를 보는 가치관은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내세관을 그대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옛부터 지역민들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형성되어 온 수의의 특징을 내세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수의를 보존,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지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수의의 특징을 비교하였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내세관(來世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의의 지역별 종류와 기능을 보면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인 나주·영암지역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타지역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섬진강 유역권인 구례·곡성지역은 속치마를 여자수의 품목

에서 제외시켰으며, 과두와 턱받이의 사용이 없었다. 해안지역권인 진도·완도지역에서는 여자수에서 원삼을 대신하여 장옷을 입었다. 습구에서는 악수를 대신하여 적삼에 한 폭의 천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염의에서는 매장문화의 차이로 옥, 금, 침을 수의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소남은 광주지역권이 5개를 사용하였고,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은 2개에서 4개가 일반적이었다.

소재에서는 조사지역 모두가 천연섬유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소재의 인식에 따라 선택 경향이 달리 나타났다.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은 삼베, 광목, 옥양목이 주류를 이루었고,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은 명주로 수의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명주가 뻤에 붙어 시신을 이장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믿음과 명주가 뻤을 잡아 보호해 준다는 인식차 때문이었다. 또한 수의의 색은 염색을 거의 행하지 않았고, 대부분 천연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형태의 외형적인 특성을 보면 남녀 적삼, 여자바지, 엄, 떡목, 악수, 턱받이에서 차이가 많았다. 특히 습구에서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은 적삼이 개량화된 반면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은 전통적인 적삼 형태를 고수하고 있었다. 또한 해안지역권의 적삼은 악수를 대신하여 소매 끝에 한삼을 붙인 형태로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자바지는 섬진강 유역권이 과거 단속곳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광주지역권과 영산강 유역권은 바지의 형태가 변형되고 있었다. 엄은 해안지역권에서 앞부분은 얼굴을 가리고 뒤부분은 등까지 늘어뜨리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었으며, 떡목은 섬진강 유역권, 해안지역권에서 조선시대 예서에 제시된 형태를 따르고 있었다. 반면에 악수는 과거 예서에서 보인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턱받이는 대부분 천으로만 제작되었는데 해안지역권은 솜을 넣은 형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세관은 죽음을 매개로하여 현세와 구분되는 반대 개념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간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세의 삶이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원적 공간을 분명하게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상례절차 중 수의를 제작하고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수의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며, 아울러 수의의 지역별 특성이 현대 수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김두현, 「五服制度의 연구」, 진단학보 권5, 1936.
- 2) 권계순, 「조선시대 궁중 상복제도考」,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1974.
- 3)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권1~4, 권6~12), 1968~1980.
- 4) 전영숙, 「수의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1권 제2호, 1977.
- 5) 상기회, 「殮襲考」, 관동대논문집 제8집, 1981.
- 6) 유희경·김미자·강순제, 「斂襲衣」,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1989.
- 7) 표인주, 「대보름민속과 관련된 달맞이 고찰」, 비교민속학회 제13집, p.469, 1996.
- 8)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광주지역권 - 윤본혜(여, 1935년생, 일반인, 광주 광산구 운수동 66-15) 외 9인.
영산강 유역권 - 김애남(여, 1915년생, 종가후손, 전남 나주시 금계동 46-3) 9인.
섬진강 유역권 - 오계순(여, 1920년생, 종가후손,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2구 207-1) 외 9인.
해안지역권 - 강당례(여, 1928년생, 일반인(어업),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용리 894) 외 10인.
- 9)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조선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0, p.8.
- 10) 조영자, 여, 1958년생,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공사금부마을 204동 1303호.
- 11) 김춘남, 여, 1929년생, 광주 서구 상무1동 광명하이츠 103동 1002호.
- 12) 『사례찬설』, 권3, 장21.
小斂大斂皆左衽結絞不紐註衽衣襟也生向右手解抽帶便也死則襟向左示不復解結絞不紐...
- 13) 김용서·안명숙, 『한국복식사』, 교문사, 1998, p.132.
- 14) 지역언어는 방언, 사투리, 토속언어 등을 의미한다.
- 15) 김영숙,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1988, p.562.
- 16) 순남숙,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1992, p.61.
- 17) 김초순, 여, 1921년생,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211.
오순금, 여, 1917년생,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지하마을) 678.
- 18) 강당례, 여, 1928년생,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용리 894.
김아지, 여, 1927년생,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촌리 84.